

기독교대한감리회 환경 예배서 및 자료집



2021 환경선교주일

| 2021년 6월 13일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환경선교주일 헌금 봉헌 안내

2021년도 환경선교주일헌금은 생태목회연구소의 설립과 환경선교주일 자료집 나눔에 사용 됩니다. 우리은행 142-242485-13-149 (재)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확인을 위해 교회 명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 O N T E N T S

차 례

인사말	_ 04
초대사	_ 05
환경선교주일 예배문 :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_ 07
- 자연신경	
- 기도문	
- 감리교 환경수칙	
- 설교문	
환경주간 공동기도문 6.14(월) ~ 19(토)	_ 19
재활용(Re-cycling)과 새활용(Up-cycling)	_ 24
교회에 가면 초록가게가 있다	_ 26
밥상은 거룩합니다	_ 3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 기독교 탄소중립 선언문	_ 44

선교국위원장 김정석 감독(서울남연회/광림교회)

우리는 지금 녹색이 은총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감리회 선교국은 2021년도 환경선교주일을 맞아 환경선교주일정책자료집을 발간합니다. 환경주일예배를 돕기 위한 자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환경목회를 돕기 위한 시각의 전환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민감하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사회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절감하며 해결 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 매우 둔감해보입니다. 환경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운동가들은 교회야말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생명 존중의 신학이 있고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환경문제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창조 세계의 원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욕심과 물질만능의 헛됨을 지적하고 십자가의 희생 정신으로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도 환경선교주일을 기점으로 감리교회가 대한민국의 탄소배출을 절감시키게 될 것입니다. 뜨거워진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자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다시 시작되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습격으로 온 인류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바이러스19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안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친교는 제한되었고, 교회공동체는 과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된다고 하여도 옛날과 같이 모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모이고 교인이 수적으로도 줄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존재방식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선각자들이 교회를 찾았고, 일제시대 때는 교회가 민족해방과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해방에 이어 찾아온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으며 교회는 고난당하는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기도 하였고,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에 발맞추어 교회는 부흥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고 그 결과 양적으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흥과 더불어 찾아온 교회의 안의 맘모니즘, 기복주의, 탈사회화 현상 등은 부흥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교회의 태도가 교회

감소(decline)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교회의 감소현상은 뚜렷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기도 없이 세상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코로나바이러스19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21세기는 ‘환경시대’로 가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탐욕을 줄이지 못하고 지금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불과 삼사십년 안에 지구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연구보고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시고 각자의 생존방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방식이 있지만 거기에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앞세웁니다.

이제 인간이 자기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존재했던 방식을 되돌아보고, 코로나 팬데믹과 그 이후의 존재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좀 더 안전하고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3)



환경선교주일 예배문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인 도 담임목사
 조용한 기도 다 같이

첫 번째 종소리는 <진실하라>는 하늘의 소리요.
 두 번째 종소리는 <겸손하라>는 땅의 소리요.
 세 번째 종소리는 <사랑하라>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찬 양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같이
 자연신경 고백 다 같이

인도자 :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섭리자인 하나님을 믿으며,
 회 중 : 자연은 신비로 가득한 생명의 터전임을 믿나이다.
 인도자 : 우리는 만물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회 중 : 자연은 사랑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나이다.
 인도자 :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영이신 성령을 믿으며
 회 중 : 자연은 창조질서에 의하여 보전되고 유지됨을 믿나이다.
 인도자 :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연 안에 충만함을 믿으며,
 회 중 : 자연은 영적인 안내자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믿나이다.
 인도자 : 우리는 녹색교회가 생명 살림의 터전임을 믿으며
 회 중 : 평화로운 세상을 여는 자연의 청지기임을 믿나이다.

인도자 :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연의 힘과 인간의 신실한 노동을 통하여
회 중 : 자연은 새롭게 창조 되어 감을 만나이다.

인도자 : 우리는 무지와 탐욕, 풍요와 편리를 따라 살아옴으로

회 중 : 자연의 신비를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시켰음을 회개하나이다.

인도자 : 우리는 환경파괴가 인류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회 중 : 지구 생태계의 종말을 부른다는 경고를 엄숙히 받아들이나이다.

인도자 : 이제 우리는 창조동산을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을 회복하여

회 중 : 생명평화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성심을 다하겠나이다. 아멘.

송 영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같이
기도 말은 이

1) 피조물에 대한 폭력을 회개하는 기도 (이동원 목사 / 환경위원)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지은 많은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
기시고 온갖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고 하셨던 그 조화로운 세상에서, 지금 저희는 조화를 무너뜨린 주범이 되어 살
아가고 있으며,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이들을 유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게으름, 사치와 낭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무관심, 가난한 이들의 절규에 대한 냉담함, 고난 받는 이들의 아픔을 느
끼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쟁에서 이기려는 잔인함과 형
제자매의 영혼을 상하게 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
를 베풀어주소서.

지금 저희는 사람들이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황폐케 하는 심각한 폭력을 목격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개발로 산양과 산새들이 보금자리에서 내
몰리고, 마구 뿜어내는 오염된 연기와 가스로 공중의 새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강과 바다에 내다버린 오염수와 폐기물로 물고기와 수중생물이 비참하게 죽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폐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어 창조세
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속절없이 훼손되고 파괴되어가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면서도 증인과 청지기가 되기는커녕 무관심과 안일함
에 젖어 사는 저희를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 피조물에게 가해지고 있는 심각한 폭력을 제대로 깨

달지 못하는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서 경탄하셨던 그 조화로운 세상을 중심으로 삼았기에 저지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세상이요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세상임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이제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경탄하셨던 그 조화로운 세상을 다시 한 번 꿈꾸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바로 그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살아갈만한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2) 창조질서 보전과 사명을 위한 기도 (김신형 목사 / 환경위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우리의 무지와 탐욕으로 피조물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사 억압하고 파괴하는 정복자가 아닌 작은 생명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연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자연 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기후변화와 생명다양성의 위기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제는 생태적 전환을 통해 창조질서보전에 앞장서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서성경본문 말 은 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 1:28)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롬 1:20)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 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 7:13-14)

환 경 영 상 YouTube 그린 엑소더스

1편_ 회색에서 녹색으로, 2편_ 탐욕에서 은총으로, 3편_ 절망에서 희망으로

찬 양 대 생 략

찬양은 코로나 방역관계로 생략합니다. 개교회의 상황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당신은 창조세계의 청지기(자료 참조) 담임목사

봉 헌 찬 양 478장, 참 아름다워라 다 같이

2021년도 환경선교주일헌금은 생태목회연구소의 설립과 환경선교주일자료집 나눔에 사용됩니다 (우리은행 142-242485-13-149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녹색나무봉헌 말 은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신앙적 결단으로 지구를 상징하는 화분에 심겨진 녹색 나무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봉 헌 기 도 담임목사

알 리 는 말 씀 인 도 자

찬 양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 같이

결 단 드 리 기 각 단위별로 고백

작은 결단을 미리 준비하게 하여 각 단위별로 고백하며 드린다.

예) 텀블러 사용하기, 채식하기, 멀티탭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생용지 쓰기

감리교 환경수칙 낭독 다같이(일어서서)

전 문 말 은 이

한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자연환경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의해 움직이며 창조의 신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탐욕은 자연환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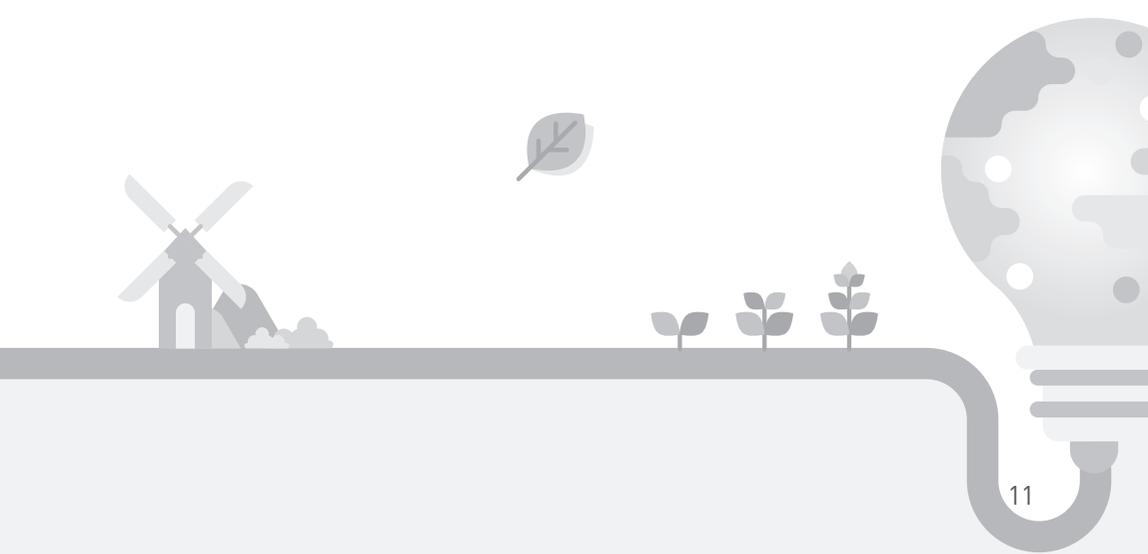
파괴하여 창조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지구생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대한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수 칙 다 함 께

- 첫째, 우리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한다.
- 둘째, 우리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한다.
- 셋째, 우리는 유기농산물로 생명밥상을 차리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넷째, 우리는 물을 아끼고 받아쓰며 가급적 재사용한다.
- 다섯째,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과 전열기기를 사용하고 실내적정온도 (여름/24-28도, 겨울/18-22도)를 준수한다.
- 여섯째, 우리는 계획구매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 일곱째, 우리는 모아서 빨래하고 천연세제를 사용한다.
- 여덟째, 우리는 재활용하고 중고품 이용을 생활화한다.
- 아홉째, 우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열번째,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주변을 깨끗이 한다.

축 도 담임목사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여기모인 회중과 고난 받는 사람들과 신음하는 피조물 위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당신은 창조세계의 청지기

환경위원 양 재 성 목사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 1:28)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롬 1:20)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 7:13-14)



위기의 지구

오늘날 인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재앙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과학자들의 마지막 경고가 이어지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자연스러운 멸종 속도의 천배나 빠른 속도로 멸종하는 생물의 대멸종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거기에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종자 파괴,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 2100년이 되면 지구온도는 최고 6.4도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물의 80%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의 지구사형선고인 셈입니다.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있고, 2040년이면 모두 녹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여, 곡창지대인 저지대를 침수시키고, 도로건설이나 도시화로 농경지가 급속히 줄고, 기후이변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식량생산량을 급속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 해

에도 수천 만 명~수억 명이 굶어 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코로나 19나 신종바이러스의 출현, 미세먼지와 방사능 오염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각종 오염으로 삶의 터전인 땅은 황폐해지고, 플라스틱에 의한 바다 오염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명체 내부 문제 등, 지구생명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인류가 될 지도 모릅니다.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의 전환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 미세먼지의 위험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드리우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날아온다고 생각하였던 미세먼지는 50~70%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등 경유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때면서 나오는 매연에서 미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이든, 미세먼지든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추정하다보면 결국 사람의 탐욕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귀착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욕심과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 예수의 꿈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생을 붙들고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어가는 것을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제 숨을 평화롭게 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예수

님의 이상이었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셈입니다. 우리교회와 감리교회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신앙과 창조신앙

기독교 전통엔 구원신앙과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구원신앙은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 받고 구원을 얻는 다는 신앙입니다. 정말 소중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통해 기독교의 근본적 가치가 이타적 사랑임을 입증한 신앙입니다. 구원신앙은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으로 나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내면의 영성을 고양하는 일과 사회 정의를 세워 불의, 부패, 위선을 걷어내고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구원 신앙은 생명을 파괴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과는 저항하게 합니다.

아울러 기독교 전통엔 구원신앙과 더불어 창조신앙을 믿어왔습니다. 창조신앙이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창조질서로 섭리하신다는 신앙입니다. 모든 존재엔 신성한 빛이 있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만물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생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입니다. 실로 만물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자연, 하나님의 집

“한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사마임אֵלֶּם)과 땅(에레츠אֶרֶץ)을 창조하셨다.”(창1/1)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그 성소를 마련하고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신26/15)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은 온 생명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게끔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히브리어로는 에레츠אֶרֶץ(땅)이고 그리스어로는 오이쿠메네οικουμενε(세상)입니다.(행17/31) 땅

은 하나님이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지어 주신 집(宇宙)입니다. 이 집에는 사람들만 살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기 전부터 나무, 날짐승, 길짐승 곤충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땅! 하나뿐인 지구! 이는 하나님이 지어서 모든 생명에게 들어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연, 하나님의 성육신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었다.”(요1/3)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만물은 지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며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조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연,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형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창1/31)

〈만들다, 지어내다, 창조하다(יצר)〉란 말은 “낳다”라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이는 어미가 자식을 낳듯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어내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낳으신 한 형제요, 자매인 셈입니다.

성인 프란치스코는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양을 형제로, 달을 자매로, 대지를 어머니로, 사슴을 자매로, 물고기를 형제로 불렀습니다. 자연을 확장된 가족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탁월한 자연 이해입니다.



자연, 하나님의 연인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창3/8)

독일의 여성 수도사, 빙엔의 힐데가르트는 “하나님은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매일 매 순간 자연으로 찾아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실로 자연은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동산을 거니셨다고 창세기 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책을 즐기셨습니다. 자연에 들면 행복해지는 것은 자연이 하나님의 연인과 같이 하나님의 기운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을 지으시고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으로 인간을 이끌어 가서선 동산을 잘 돌보고 지키도록 부탁하셨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최초의 사명인 셈입니다. 이 신앙고백위에 기독교가 지어졌습니다.



자연, 성서이전에 성서

생태 영성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자연은 성서 이전의 성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책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입니다. 자연은 진리를 가르치는 친구입니다. 자연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심을 돕습니다. 자연을 해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자연, 하나님께 이르는 길

생태신학자 도드는 “예수께서 자연계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것은 자연계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 사이엔 내적인 친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자연의 과정과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드는 “자연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영적인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

든 것을 다 하는 무위자연의 배후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은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내면적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을 배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됩니다.



자연, 하나님의 계시 사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롬1/20)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성서는 기록된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느끼고 만납니다. 그러기에 성서는 그 어떤 책보다 귀중한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은 특별한 계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인류는 물론 이 세상 만물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능력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자연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정신세계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자연과 함께 걷는 삶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자연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연파괴는 단순히 환경이 부서져 재앙으로 되돌아오

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불행은 자연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 하나님조차도 경탄하신 자연의 영감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자연을 그저 이용과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자연 속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영적, 정신적, 심미적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로이드 기링 박사는 “지금이야말로 저 피안의 세계로 추방한 신성을 다시 교회로 찾아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열어 보십시오. 창조세계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환경운동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신앙운동이며, 세계관을 바꾸는 정신운동입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생태운동이며,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 생활운동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성운동입니다.

제인 구달 박사는 위험에 처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자연의 재생능력과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인간의 불굴의 열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재생능력은 하나님의 몫이니, 결국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인류의 불굴의 열정이 지구 생태계의 희망인 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신음하고 탄식하는 피조물의 해방을 위해 일할 하나님 자녀들과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창조세계의 청지기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구재앙에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과 기술력의 진보가 아니고 인간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태운동가들은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좁은 길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길, 불편을 감수하는 길, 절제의 삶에서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희망은 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13세기 생태영성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만물이 제 모습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시사건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사건임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반드시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살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모든 만물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 대하듯 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생명을 무시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불의한 세력엔 저항하고 거짓과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예언자들과도 맞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낳고 기르시는 자연을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피조물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십시오. 아픔의 현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주간 공동기도문

6.14 (월)

하늘을 위한 기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편안함에 안주하며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던 하늘은 어느덧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잿빛 하늘 아래 우리의 한숨마저 깊어져 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이 탄소배출 감축에 힘쓰며 자신의 일상에서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매일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모습대로 맑고 파란 하늘을 아름답게 지켜내도록 여기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 드립니다. 창조세계 보전을 위해 쓰임이 피조물의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파도에 숨가쁘게 요동치는 부표처럼, 우리네 삶은 때때로 격랑에 휘둘러 기도 합니다. 길을 찾지 못해 막막할 때면 산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그러하게’ 영겁의 시간을 견디었고 본연의 자리를 끝내 지켜낸 산입니다. 산을 오르면서 찬찬히 우리 삶을 돌아볼 때면 우직한 산은 우리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줍니다. 시름을 내려놓고 산을 내려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새힘을 얻었습니다.

들에서는 갖가지 먹거리가 나옵니다. 들은 우리네 삶을 지탱해주는 원천입니다. 만약 들이 없다면 사람도 없게 됩니다. 들을 잃어버리면 생존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들이 훼손되면 우리 생명이 오염됩니다. 우리 몸과 들은 둘이 아닙니다. 들에서 우리 몸이 나왔습니다. 들에서 나온 것이 우리 몸을 짓습니다. 그래서 들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들에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산을 통하여 주님의 광대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통하여 참 생명의 근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면모를 산에도 남겨두시고, 주님의 사랑을 들에도 남겨두시어, 저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새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생명 정의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산과 들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케이블카가 산과 들을 망가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송전탑 전기 탓에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작 편의시설을 위해 생명의 근원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일이 더이상 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이 많은 부자가 되려 하기보다, 생명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는 영성이 이 땅 위에 가득차게 해주십시오.

산과 들을 의지하듯,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의 계절에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대지에 비를 내리고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물은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지구별의 모든 생명의 젖줄인 물이 대지의 생명을 살리고 강을 타고 흘러 바다를 향하는 순례의 여정을 통해 생명의 물은 바다를 이루고 생명의 순환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강과 바다는 인간의 탐욕으로 산업화 이후 많은 물이 공업용수로 사용된 후 하천으로 다시 방류되면서 수질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고 급격히 늘어난 인구의 물 사용이 늘어나면서 생활용수로 인해 강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바다는 오염된 물과 쓰레기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강과 바다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의 해양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생명의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게 도와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물을 둘러싸고 심각해지는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강과 바다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계절로 번지는 녹색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작은 풀 한 포기에도 주께서 깃들여 계심을 고백합니다. 긴 겨울을 견디고 새싹이 움트는 기적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더 큰 경탄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도 함께 반복되게 하옵소서. 꽃과 열매의 때를 지나, 죽고 썩고 먹혀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풀과 나무를 통해 그리스도

의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풀과 나무들이 자신의 생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작은 생물들과 곤충과 새와 짐승들이 살아갈 자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계속하여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탐욕 때문에 풀과 나무들이 살아갈 땅과 조건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땅의 오염과 기후의 변화에 사람보다 먼저 신음하는 풀과 나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필요를 따라 수단과 값으로만 바라보며 풀과 나무를 병들고 죽게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해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식물과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미안함과 고마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식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풀과 나무가 우리를 지켜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것들을 사람의 우매함과 탐욕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18 (금)

동물들을 위한 기도

생명 대 생명이 죽음을 공유하며 질서 안에 있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의 욕망으로 학살되고 남용되어질 때 세상은 위태롭고 추합니다. 인간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다른 종의 모든 생명은 소비재이며 재산일 뿐입니다.

숲도 바다도 들도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엔 부족하기만 합니다. 동료의 죽음에 허둥대는 코끼리 어미를 찾아 헤 메는 바다 돌고래 새끼의 죽음을 메 달고 다니는 오랑우탄 슬픔을 아는 듯 주어진 삶을 끌어안고 죽음을 바라보는 모습이 처연합니다.

코로나로 집안에만 있다고 투덜대는 우리들은 평생 닭장과 돼지우리, 소 사육장에서 섰다 앉았다만 반복하다가 밥상위의 죽음으로 바뀐 처참함을 외면한 채 그저 입맛이 쓸 뿐입니다.

그렇게 먹어대는 인간들이 경제 논리로 더 증가되어야 한답니다. 당신이 주신 에덴은 현재까지 지구가 유일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천적인 지구촌의 동물중 인간, 무섭고 두렵습니다.

인간 탐욕 주머니의 돈으로 바뀐 생명들을 애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가 목상의 시간들을, 교정의 시간들을 준 것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훼손한 생명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생명 대 생명이 죽음을 공유하며 당신이 부여한 질서 속에 있을 때만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19 (토)

생태적 삶을 위한 기도

주님,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소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내 손에 쥐는 것을 소중히 품고 나누기보다, 결눈질로 타인과 비교하며 불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남용과 지나친 욕심에서 왔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부러움 없이 소비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무한경쟁에서 패배자로 낙인찍혀 고통 받는 이웃들과 생태계 파괴로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향해 손 내미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거짓된 욕망을 버리고, 배설물만 가득 남기는 소비사회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순환하며 정화되는 자연의 이치가 진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웃,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이끄는 지속가능한 삶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공동체의 삶을 깊이 고민하고, 자연과 이웃의 고통에 함께 하는 사랑의 길에 앞장서게 하소서.

기후재난으로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쓰러지는 이 땅의 약자들을 기억하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활용^{Re-cycling}과 새활용^{Up-cycling}

백석교회 소속 신 석 현 목사

기후붕괴로 인하여 위기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때, 지금의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애써 외면해 보려해도 체감되는 기후위기의 현상들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극복하려고 한국교회와 함께 탄소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을 진행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일곱가지의 실천사항 중 두 번째가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문화로 ‘슬로우 패션’을 주창합니다. 슬로우패션의 첫 번째 실천으로 소박한 옷장을 만드는 일로 집에서 친환경적인 옷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입기, 그리고 교회에서는 안입는 옷을 서로 바꾸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안에 초록가게로 확대해 나가는 일을 실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슬로우패션의 두 번째 실천은 새활용을 실천하는 것으로 수선과 리폼의 생활화, 새활용 정보를 공유하고 안내하는 것, 그리고 새활용 공방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실천은 재활용(Re-cycling)과 새활용(Up-cycling)의 장으로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초록가게를 교회에 여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개체교회마다 일년에 한 두 차례 여는 바자회나 야나바다 장터를 교회 한 장소를 할애해 매주 한 번 또는 그 이상 항상 여는 것입니다. 재활용할 물건은 크기와 사용처를 불문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 뿐만아니라 교회공동체안에는 재활용할 물건을 이용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재와 콘텐츠들로 가득합니다. 이를 실천할 ‘한 교회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교회에 가면 초록가게가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교회마다 초록가

계를 세우는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지금은 녹색교회운동으로 발전된 것입니다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초록가계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발굴해 상담하고 컨설팅해서 세우고 연대해 나가는 일 이었는데, 교회가 계속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는 주1회 길거리에서, 어느 교회는 교회의 한 모퉁이를 이용해서, 어느 교회는 뜻있는 청년들이 맡아서, 때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마당 큰 잔치에 셀리로 연대해서 열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교회밖 마을안에 임대가게로, 어느교회는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통해서 볼 때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은 절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욕심의 죄에 속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단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안에는 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이용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는 재활용(Up-cycling)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붕괴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이 때, 재활용과 새활용을 통해 한국교회 탄소중립을 이루어 낼 ‘한 교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가면 초록가게가 있다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초록가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생각하며 자원을 재활용, 재사용함으로써 태초의 에덴동산을 회복해가는 곳입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기독교인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생명살림터입니다. 이곳을 통해 신음하는 생명이 회복되고, 황폐해진 세상에 초록빛 생명이 되살아나는 꿈을 함께 꿈시다.

| 교회안의 초록가게 설치를 통한 환경운동 방안 |

1. 목적

- 1) 환경운동의 신앙화
- 2) 녹색신앙의 실천으로서 초록가게 설치 및 운영과 발전
- 3) 지역사회(지역교회연합, 동사무소, 구청, 시청)와의 연계를 통한 환경운동으로 확산
- 4) '교회안의 초록가게'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및 상품 교류 - 녹색카드제도 활용
- 5) 지속가능한 소비와 삶을 확산해 나가는 센터로서의 초록가게 역할

2. 품목

- 1) 재활용 생활용품(의류, 그릇, 신발, 가방, 모자, 가전제품, CD/DVD/비디오 테이프, 서적, 학용품, 교복, 가구 등)

- 2) 환경상품
- 3) 유기농산물
- 4) 환경실천 및 홍보(현수막 장바구니, 조각천 사용, 쓰레기 분리줄이기 등)

3. 단계별 실천사항

1) 준비단계

- 교회 내에 환경전담부서 설치 : 초록가게 운동(설치 및 운영)발의
- 재활용품 수집, 환경상품 품목설정과 구매, 환경실천 모델발굴 및 홍보자료 입수, 장소 및 품목배치도/봉사인원/운영방법 확정, 개점일 확정, 자원 봉사자 확보 및 교육

2) 실천 및 정착단계

- 신앙화를 통한 접근 : 환경주일예배 또는 환경전담부서 주관예배
- 개점식 및 이벤트(먹거리, 생협 등) 행사개최, 항시 재활용품의 교환 및 기증
- 단계별 개점확대 : 주일 / 토, 주일 / 항시개점

3) 발전단계

-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하고 홍보(이벤트 행사 및 강좌, 문화행사)
- 지역교회 연합 이벤트 행사 및 상설매장 개점
- 정부기관(구청, 시청 등)의 협조로 장소 및 후원을 받아 확대시키는 방안 (수리센터를 환경센터화) 자료 및 서적발간

4. 기타사항

- 1) 초록가게(알뜰장터, 나무장터, 벼룩시장 등 포함) 모델 발굴
- 2) 기환연 지정 초록가게 모델교회 꾸리기
- 3) 수익금에 관한 사용처
- 4) 지원 시설단체(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등)와 물품 생산, 판매 협력(과천녹색가게)
- 5) 녹색카드 사용의 활성화

- 6) 교회지도자 및 환경부서를 위한 초록가게 세미나 개최 - 방문교육, 초빙교육
- 7)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연계(현수막 사업-복지관과 연계)

초록가게 자원봉사자 수칙

1. 자원봉사자 상호간의 호칭은 교회 내 직분에 준합니다.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봉사시간 중에는 되도록 잡담을 나누지 않습니다.
2. 봉사 가능한 시간을 정하고 시간 약속을 꼭 지킵니다.
3. 자원 봉사 시간을 조정할 때 운영위원장 또는 실무자에게 꼭 연락합니다.
4. 수시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봉사자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 봉사자 일지를 활용합니다.
5. 각종 일지 작성법을 숙지합니다. (일지에 이용자 연락처,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6. 가격 기준표에 근거하여 이용자가 가져온 물품에 가격을 붙입니다.
7. 이의를 제기하는 이용자에게는 초록가게 운영 취지와 원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8. 오전 봉사자는 개장 시간 전에 도착하여 청소와 물품정리를 합니다.
9. 오후 봉사자는 판매일지의 하루 거래내역을 총 정리하여 마감, 기록합니다.
10. 판매된 물건의 환불 및 교환은 불가합니다.
11. 가게 봉사시 앞치마와 이름표를 착용합니다.
12. 자원봉사시간 중에 접수된 물품은 전부 매장에 전시하며, 자원봉사자의 물품구입은 자신의 봉사시간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13. 충동·과다 구매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만 구입, 교환할 수 있도록 구입물품 수를 제한합니다.



초록가게 이용자 수칙

1. 환경살림과 녹색소비,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초록가게의 주인입니다.
2. 자원봉사자들과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눕시다.
3. 가게 내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 안내문을 잘 읽어보고 초록가게 운영에 협조해 주세요.
4.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물품을 정리, 손질하여 가지고 나옵니다.
5. 초록가게 이용자는 누구든지 물품교환, 기증, 구입, 위탁판매 의뢰, 정보제공, 센터운영, 의류수선, 기획행사자원봉사, 홍보 등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6. 접수·판매대에서는 물건을 고르지 못하며, 진열된 후 선택하세요.
7. 옷을 선택한 후 옷걸이까지 함께 접수판매대로 가지고 오세요.
8. 물품가격은 가격표대로 따라주세요.
9. 내게 꼭 필요한 물품인지 생각하고 구입합니다.(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물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필요치도 않은 물품을 구입한다면 이것도 과소비, 충동구매!)
10. 위탁판매를 의뢰할 때에는 위탁거래증을 작성한 후 잘 보관합니다.
11. 초록가게 운영에 관해 좋은 의견이나 정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세요.
12. 이의를 제기할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지킵시다.
(초록가게 자원봉사자들은 자기의 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13. 이용에 관한 문의는 리플렛 및 이용안내문을 참조하세요.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 자원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주세요.)



추진 일정

1. 개점 전 준비

- 담임목사 및 환경위원, 초록가게 담당자 면담
- 교회의 초록가게 기획안 협의
- 초록가게 공간 확정 및 장소 시설 설치
- 초록가게 위원회 구성 및 자원봉사자 모집
- 초록가게 위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 봉사일시 조정
- 정관협의 및 운영방법 협의
- 재활용물품 수집 및 홍보시작
- 개장일시 확정 및 개장식 준비
- 가게 꾸미기(장식, 설치, 각종 비품 마련)
- 초록가게 위원 및 자원봉사자 헌신예배, 위촉식
- 각종 문서 및 서류 구비(초록카드, 자원서, 일지, 회계장부, 회의록, 앨범 등)

2. 개점 시 준비

- 예배센터 꾸미기
- 안내 및 영접(방명록, 후원회 및 자원봉사자 신청서, 홍보전단 등)
- 기념품 및 간식(식사)준비
- 초록가게 현판식(현판 기환연 준비)

3. 개점 후

- 위원 및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 이벤트 행사 계획 및 실천
- 정기 월례회



밥상은 기록합니다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참고본문_ 창 1:29, 9:1-7, 주요본문_ 요 6:51-59

1. 들어가기

밥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는 일은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밥상을 차리는 일을 살림살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은 건강한 삶을 만들고 오염된 밥상은 오염된 삶을 만듭니다. 밥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여기 감자 칩이 있습니다.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미국산 감자에 미국산 대두가 들어갔습니다. 미국산은 대부분 유전자조작식품입니다. 유전자조작식품은 한 때 인류를 구원할 신기술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인류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했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시판이 금지 되었고 재배도 제한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간에 많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독성물질이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동물이 집단 폐사하였습니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유전자조작식품을 먹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과자엔 또 아이들에게 특히 여자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화학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공동체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의 공

동체도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늘 식탁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만찬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밥을 함께 나누는 성찬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씀하심으로 밥상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데 그 상은 밥상입니다. 실제 상은 밥상에서 유래한 것이라지요? 무슨 일을 잘 해낸 사람을 위해 한 상 차려주는 것이 상입니다.

2. 무너지는 밥상

우리의 주식은 무엇일까요? 공기와 물과 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밥상은 우리 몸을 위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자연이 다 밥상인 셈입니다. 오늘날 대기오염은 물론 수질오염과 먹을거리 오염 등으로 우리의 밥상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밥상의 오염은 곧바로 지구 생태계 파괴와 몸의 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구 생존과 우리의 생존은 직결됩니다.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합성세제와 농약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식품 첨가물과 함께 먹을거리의 오염을 불러왔고 인스턴트식품과 청량음료는 경제성과 상술로 인하여 독이 되어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엔 보기 좋고 맛을 내기 위해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 수십에서 수백 종이 들어가 있어 질병의 원인이 되고, 가축은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사료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 밥상의 회복 없이는 몸의 회복도 생태계의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성서에서 생명밥상의 의미를 찾아보고 생명밥상의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3. 하나님이 주신 처음 밥상은 숨과 물과 채식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공기, 바람, 숨은 인간이 먹은 최초의 식사입니다. 그 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숨이 우리를 쉬는 것입

니다. 살라고 명하신 분의 숨이 우리를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숨을 먹이십니다. 공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의 선물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창조의 기본 재료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식보다 육식을 즐기는 식문화가 생태계 파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식탁은 채식밥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은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육식은 채식에 비해 고비용이 듭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3%입니다. 하지만 채식으로 바꾸면 당장 70%가 됩니다. 가축에게 먹일 사료 수입이 그 만큼 많이 때문입니다. 인류가 채식으로 바꾸면 자동차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납니다. 세계적으로 하루에 4만 명이 굶어서 죽어 가는데 가축 사료로 들어가는 곡물을 굶주리는 이웃에게 주면 굶주림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식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생명밥상의 원형입니다.

4. 환경파괴의 주범인 육식, 그리고 산업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하나님은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동물을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공식적으로 육식을 합니다. 하지만 단서는 피 채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에 생명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되 생명을 함부로 유린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하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밥상은 하나님의 선물인 셈입니다. 하지만 육식은 더 맛있는 것을 찾는 인간의 구미를 자극하기 위해 더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생태계에 부담을 주며 곡물을 집어 삼킵니다. 지구 한 쪽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질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진배없습니다.

5. 밥상을 거룩하게 한 성만찬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당신을 가르쳐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며 물이라고 하신 것과 당신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란 말씀은 영적이면서 밥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물론 여기에서 주장하는 떡과 물, 즉 살과 피는 예수의 가르침과 삶,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으로 우리는 모든 밥상이 이미 하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생명밥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밥상은 생명들로 꾸며진 것이니, 하나님의 생명이 밥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밥상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다만 생명에 대한 겸허함과 감사함으로 대하면 이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탐욕과 무지로 대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입니다. 이미 밥상은 제사행위인 셈입니다. 예배행위입니다. 제물인 밥은 먹는 이에게 먹혀 살과 피가 됩니다. 그러기에 먹는 이는 먹히는 것들의 몫까지 살아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은총으로 살고 다만 은총으로 내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밥을 먹고 기꺼이 밥이 됩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밥되기를 거절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6. 성만찬 식탁의 생태학적 의미

성만찬은 우리 생명밥상의 원형을 생각하게 합니다.

- 1) 성만찬 식탁 위에 올려진 모든 음식은 공평하게 나누어진다.
- 2) 성만찬의 식탁은 단순하고 소박한 음식으로 준비되어진다.
- 3) 성만찬의 식탁이란 친교를 동반하였다.
- 4) 식탁의 주인은 주님이고 우린 초대된 귀한 손님이다.
- 5) 종말론적 식사로서의 성만찬은 감사를 동반한다.

| 지구를 살리는 건강한 식사에로의 초대 |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자.
제철음식을 먹자.
음식을 조리할 때 에너지를 절약하자.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을 자제하자.
수입식품, 유전자 조작식품 대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자.
외식을 줄이고, 도시락을 준비하자.
쓰레기를 줄이는 식사를 하자.
멸종위기 동물을 이용한 보신음식을 먹지 말자.
과식하거나 과음하지 말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자.

| 배부르지만 병약한 시대 |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지가지 병의 대부분은 잘못된 식사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자연의 순리와 계절을 거스르는 식사, 육식 위주의 식사, 인스턴트 식사, 농약과 화학조미료를 남용한 식사, 그리고 지나친 탄식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구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가족의 건강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식사습관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의 먹을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썩은 밥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죽은 밥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회를 만들고 죽은 사회는 인류를 망치게 하고 결국 우주를 죽게 합니다. 그러니 살아 있는 먹을거리를 만드는 농부는 우주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 또한 살아있는 먹을거리를 먹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체형엔 채식이 좋다고 합니다. 식단을 푸르게 바꾸고 밥을 하늘의 선물로 받아 남김없이 다 먹음으로 쓰레기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밥 한 그릇의 의미 |

가수 홍순관은 <쌀 한 톨의 무게>라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그렇습니다. 쌀 톨을 만들기 위해 태양과 바람과 구름과 땅과 이웃생명들이 기여했습니다. 가히 전 우주가 역사했습니다. 이제 밥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잘 아시겠습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간소한 밥상을 차리고 남김없이 다 먹는 삶은 신앙행위입니다.



생명밥상 빈그릇은



신앙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섬기는 신앙운동입니다.

- 한 톨의 낱알에는 햇빛과 바람, 비와 흙, 농부의 땀과 수고가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있습니다.
- 다른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살아가는 밥상은 거룩한 성찬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의 마음으로 밥상을 대하는 것은 생명을 경외하는 신앙의 작은 실천입니다.
-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고, 남김없이 비우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지키고, 다른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건강



안전한 먹을거리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건강운동입니다.

- 생명의 밥상을 차리는 것은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재배된 먹을거리, 유전자 조작식품, 인스턴트식품들로 인해 더럽혀지고 병들어가고 있는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적당량을 만들고 덜어 먹으면 과식하지 않게 되어 비만등 성인병을 예방 할 수 있고, 밥상에서 절제를 배울 수 있게 되어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 내 몸과 마음, 지구의 건강은 생명의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살림



창조세계를 살리는
살림운동입니다.

- 우리나라의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의 특성상 심각한 수질오염과 토양 오염을 유발하며, 소각할 경우 비용증가는 물론 불완전 연소로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합니다.
- 생명밥상을 차리는 것은 우리의 땅이 화학비료와 농약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음으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고통받는 많은 생명들의 고통을 덜어 주며,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



청빈(淸貧)을 실천하는 경제운동입니다.

- 우리나라 남은 음식물의 경제적 손실 가치는 1년에 15조원으로 우리나라 한 해 자동차 수출액에 해당합니다.
- 버려지는 남은 음식물의 양을 20%만 줄여도 연간 3조원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생명의 밥상을 차리고 남김없이 먹겠다는 작은 실천은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되며,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눔



굶주림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눔운동입니다.

- 북한에서는 연간 7살 미만의 어린이 4만명이 심각한 영양결핍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 단순 소박한 밥상을 차려 남김없이 먹겠다는 다짐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른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생명밥상의 12가지 수칙



몸에 좋고 지구에 좋은 것은 철 따라 주어집니다.

주님은 철 따라 풍성한 음식을 주십니다. 비닐하우스 농사는 에너지 소비가 큽니다. 외식은 식품첨가물 등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 국내산·유기농산물을 애용한다.

둘, 제철음식을 먹는다.

셋, 가공식품을 삼간다.

넷, 외식을 최대한 줄인다.

깨끗하고 단순한 밥상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수입밀, 콩, 옥수수는 농약과 유전자 조작으로 좋지 않습니다.

대단위 축산은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다섯, 계획 구매하며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여섯, 단순하게 조리하여 먹을 만큼 담아낸다.

일곱, 반찬수를 줄여 간소한 상을 차린다.

여덟, 육식보다 곡식과 채소를 즐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군주리는 이들이 수백만에 이르는데,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은 15조원이나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홉, 생명주심에 감사하며, 천천히 먹는다.

열, 신음하는 이웃을 생각하며 소식한다.

열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

열 둘, 최소한으로 배출된 음식쓰레기는 재활용한다.

빈 그릇 식사 이렇게 해요!



식빵조각으로 깨끗이~

큰 접시에다가 먹을 만큼 덜어

뷔페식으로 식사를 한 후

남은 음식찌꺼기나 국물을 식빵 조각으로 닦아 먹는 방법이다.

설거지도 쉬울뿐더러 물도 절약하는 생태적인 방법이다.



물로 깨끗이~

식사를 다한 다음

그릇을 따뜻한 물로 행구어 먹는 방법이다.

물 한방울과 밥 한톨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수질오염도 일으키지 않는 생태적인 방법이다.



상추로 깨끗이~

큰 접시에 음식을 덜기 전에

접시만큼 상추(혹은 너른 잎사귀 채소)를 두세 잎 깔고

그 위에 음식을 담는다.

식사를 다 한 후 상추는 먹도록 한다.

채소도 먹고 물도 절약하는 생태적인 방법이다.

그래도 남은게 있다면? EM 지어에 맡겨 보세요~

EM을 통한 남은 음식물 퇴비화 방법

■ 준비물 : 10~30리터 용량의 양동이, 흙, 미생물효소

■ 만드는 방법

- ① 흙(거친 흙이 좋다)을 양동이 바닥에 깬다.
- ② 남은 음식물에서 수분을 충분히 뺀다. (수분함유량 60% 정도)
- ③ 양동이에 남은 음식물을 넣고 흙(마른 흙)으로 덮는다.
- ④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헝겊으로 덮는다.
- ⑤ 양동이가 찰 때까지 2번의 과정을 반복한 후 한달 정도 둔다.
- ⑥ 가끔씩 내용물을 흔들어 준다.
- ⑦ 한 달 후, 부식이 완료되면 퇴비로 사용한다.

지렁이를 통한 남은 음식물 퇴비화 방법

■ 준비물 : 깊이가 30~40cm의 불투명 상자나 유약칠이 안된 토분

■ 만드는 방법

- ① 가정의 남은 음식물의 양에 따라 지렁이 상자의 크기를 결정한다. (상자의 면적 4인 가족 기준 2.4㎡)
- ② 지렁이 상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상자 안에 공기가 충분히 통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준다.
- ③ 분변토가 생성이 되어 있으면 걷어내고 다시 발효된 남은 음식물과 흙을 버무려 넣는다.

■ 주의사항

- 지렁이가 좋아하는 온도는 10°C~15°C이므로 너무 더운 곳에 위치시키지 않는다.
- 지렁이가 적응이 될 때까지 음식물의 양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 항상 수분이 마르지 않게 간간이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려준다.
- 지렁이는 독성에 약하므로 화공약품이나 독극물 등의 유해물질은 유입시키지 않는다.
- 너무 강한 산성에서는 지렁이가 살 수 없으므로 식초 등의 자극적인 음식물의 투입은 자제하고 소금기가 많은 음식물은 물로 한번 씻어준다.

문의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T. 02) 711-8905, www.greenchrist.org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기독교 탄소중립 선언문

선언문

수많은 전문가들이 10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생태계의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부분의 생물 종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모아 절박한 심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하나님께서 인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태계가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도 형제자매 피조물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기적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므로 창조세계를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참회 우리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보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

후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지구생태계 파괴와 피조물의 희생을 담보로 얻은 경제발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기복신앙에 취한 채 영혼구원만을 강조하고 이 땅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참회합니다.

진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당대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모범을 따라 다시 돌이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자연을 희생시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과 인류의 과도한 개발과 과소비로 인한 기후위기는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 모두를 위기에 빠뜨린 당면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또한 인류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주거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 보존을 위해 온실기체 감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와 시민사회는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적절한 소비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정책, 기업의 상품생산과 판매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9월 국회가 통과시킨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문’과 2020년 10월 정부가 천명한 ‘2050년 탄소중립’을 환영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후위기 준비를 미루자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온실기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한국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EU가 주축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 탄소국경세금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은 미국, EU,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만 2023년에는 6,100억 원, 2030년에는 1조 8,700억 원에 달하는 탄소국경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구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우리는 공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자 한국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국회, 기업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온실기체 감축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생명을 파괴하는 경제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기후약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신 기후 세계체제에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기업이 거국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석탄발전소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자연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신속히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이 기업의 생존에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온실기체를 감축하는 생산 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결단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결단합니다.

우리는 한국기독교를 대표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 교단과 지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플랫폼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목회 매뉴얼을 개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과 일상생활, 사회조직 속에서 탄소 저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세계교회와 함께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JPIC)이라는 에큐메니칼 신앙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연구자, 신학자, 기독교민

운동그룹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선교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해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교신학포럼>과 <생태정의아카데미>와 연대하여 국내 기독교대학교 및 신학대학교에서 기후위기사대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경호

총무 이홍정

회원교회 교단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정호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건희 총회장

구세군한국군국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장미선 총회장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유영희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

회원연합기관 대표

기독교방송(CBS) 한용길

대한기독교서회(CLS) 서진한 사장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 채수일 이사장

한국YMCA전국연맹 송인동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환경선교주일 정책 자료집

발행일 | 2021년 5월 31일

발행인 | 이 철 감독회장

편집인 | 오일영 선교국 총무

담 당 |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기 획 |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디자인·인쇄 | 디자인통 (02-2278-7764)

홈페이지 | www.kmc.or.kr